

“사회대 교수 공채 과정 공정성 결여”

조선대 학장, 문제 제기 파문

학교측 “절차 적법”

단과대 학장이 자신의 소속 학교 교수 공채 과정에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학교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수 공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동근(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선대 사회대 학장은 최근 진행된 신문방송학과(방송·영상·문화 전공) 교수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와 같은 학부 또는 대학원 출신 심사위원이 위촉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채용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학 본부에 발송했다.

기초심사의 심사위원 3명 중 1명은 지원자 A씨와 같은 학부 출신이고, 다른 1명은 A씨와 같은 대학원 출신이며, 나머지 1명은 B씨와 같은 학부 출신이라는 것이다. 1단계 심사위원은 조선대 교수 2명과 외부 심사위원 3명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교내 심사위원은 학장과 학과장이 협의해 전공교수 4명을, 외부 심사위원 몫으로 2명을 각각 복수추천하며, 나머지 외부 심사위원 2명은 총장이 위촉한다.

학교 측은 이 학장의 문제제기에 따라 최근 교원채용전문위원회를 열고 채용과정의 공정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참여 심사위원들이 학교 내규로 규정돼 있는 제한 자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제정된 조선대 ‘전임교원 채용내규’에는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는 자의 자격으로 ‘지원자의 석·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 ‘지원자 대표논문의 공동연구에 참여한 교수’ 등을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 학위는 문신사위원 참가교수도 자격을 제한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조선대는 지난주 초 A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 임용에 따른 후속절차를 밟고 있다.

이 학장은 대학본부에 요구했던 채용종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8일 교수평의회에 비슷한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학장은 현재 미국에서 체류 중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광주교도소 습격 받는다면?

을지연습서 진압 가상 훈련... 일부 문제점도

“광주교도소가 적의 공격을 받아 수천명의 수형자들이 도심으로 쏟아지면 어떻게 대처하나.”

18일부터 시작된 을지연습의 핵심 과제인 ‘광주교도소 피폭에 따른 수습대책’에서 가정된 상황을 살펴보면 군·경을 비롯한 소방서 간의 긴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광주교도소는 현재 1천 800명이 수용돼있는 이 지역의 ‘가’급 중요 시설로 구분된다.

이번 연습은 광주교도소 뒷산에 위치한 ‘가’급 중요 시설로 구분된다. 이번 연습은 광주교도소 뒷산에 위치한 ‘가’급 중요 시설로 구분된다. 이번 연습은 광주교도소 뒷산에 위치한 ‘가’급 중요 시설로 구분된다.

최근 초기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인근 31사단과 경찰서·소방서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31사단은 3개 대대 병력을 급파해 수형자 진압에 나서고 문화동·운암동·서광주 나들목·동광주 나들목 등에 검문소를 설치한다. 화재 진압과 부서진 건물·전기·통신을 복구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하지만, 일부 문제점도 지적됐다. 소방관들이 교도소 내부 구조를 잘 몰라 초기 진압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

또 도주한 죄인이나 탈주한 수용자들이 인근 주택가로 들어갈 경우 검문소, 주민통제소, 골목통제소의 유기적인 운영이 제때 이뤄지지 힘들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광주교도소는 우선 기동타격대를 출동시

먹구름 잔뜩 8월 19일 (음 7월 19일) 전국날씨.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Seoul, Busan, and Jeju. Includes a map of Korea and a table for Jeonju weather.

조선대 문제 해결 특위 구성

사학분쟁조정위 내달 4일 첫 회의 소집 9월까지 이사진 공백... 학사 일정 차질

조선대 법인 정상화를 논의할 사학분쟁조정위(위원장 정귀호)가 조선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사학분쟁조정위는 지난 14일 회의를 갖고 조선대를 비롯한 정상화 추진 대학 4곳을 집중 논의할 특별소위원회 구성을 마친 데 이어, 첫번째 특별소위 회의의 날짜를 다음달 4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초부터 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이사진 공백 사태도 9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조선대는 현재 2학기 강의에 나설 신입교수 채용을 진행 중이어서 사학분쟁조정위의 결과가 늦어짐에 따라 학사일정 차질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각각 5명으로 구성된 2개의 특별소위는 조선대·광운대, 상지대·세종대 등 2개 그룹으로 나눠 논의하기로 했다. 조선대를 다루는 특별소위 위원장은 박영갑 변호사, 김영석(연세대), 김윤자(한신대), 박기용(상명대) 교수 등이다. 이들은 지난달 열린 비공식 회의 이후 실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조선대 관련 보고서 작성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4일에

는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치열한 별리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의 논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해당 학교 구성원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다. 학사 일정과 관련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안들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대는 39개 학과에서 교수 채용을 진행, 20개 학과가 면접 절차를 마치고 최종 합격자를 최근 발표했다. 조선대 부설 중·고교는 퇴임 교원 대체에 애를 먹고 있다. 조선대병원원 간호사 등 상시 채용을 하지 못하면서 각종 평가지표에서 불이익이 우려되는 등 이사회 공백 여파가 적지 않다.

‘전 경영진 복귀 저지 및 조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해만(치의예과 교수) 위원장은 “교수 채용의 경우 10월 임용이어서 9월 4일이라도 결정을 해준다면 급박한 상황은 피할 수 있다”며 “정상화 추진 중인 나머지 3개 대학과 연대해 사학분쟁조정위가 조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부우~ 코끼리 보러 오세요”

18일 광주우치동물원을 찾은 시민들이 동물원 개장 이래 처음으로 들어온 코끼리 세 마리를 만져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날 코끼리 입식은 광주시와 (주)코끼리월드와의 협약에 따라 이뤄졌으며 앞으로 한 달여 뒤부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공연도 벌이게 된다.

18일 광주우치동물원을 찾은 시민들이 동물원 개장 이래 처음으로 들어온 코끼리 세 마리를 만져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날 코끼리 입식은 광주시와 (주)코끼리월드와의 협약에 따라 이뤄졌으며 앞으로 한 달여 뒤부터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공연도 벌이게 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14 상담원도 배꼽잡는 가게 이름 ‘미쳐버린 파닭’

‘미쳐버린 파닭’, ‘태풍은 불어도 철가방은 간다’, ‘까끌레 뽕글레’, 듣기만 해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가게 이름들이다.

114 생활정보기업 코디가 지난 4~14일 114 상담원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이 나오는 가게이름’ 설문조사 실시, 236개의 이름을 1차 선정

한 뒤 다시 가장 웃긴 이름을 고른 결과 1위는 123표를 얻은 ‘미쳐버린 파닭’(치킨집)이 뽑혔다.

2위는 95표를 얻은 ‘태풍은 불어도 철가방은 간다’(중국음식점)가, 3위는 54표의 ‘까끌레 뽕글레’(미용실)가 각각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고기음식점의 경우 ‘돼

지 땀기는 날’, ‘돼지 집합소’, ‘돼지코 꾸냥’, ‘돼지가 웃통 벗는 날’ 등이 웃음을 자아내는 이름으로 선정됐으며 치킨집 중에는 ‘터무니 통닭’, ‘츄츄는 짬뽕 피리부는 풍집’, ‘닭이 밥비에 빠진 날’ 등이 뽑혔다.

또 미용실 가운데는 ‘머리할 때 똘똘’과 ‘끄덩이 미용실’, 주점으로는 ‘사촌술통’과 ‘엄격한 실내마차’ 및 ‘막사밭 한대지비’가 재미있는 이름으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광주 영어 라디오방송 설립 탄력

응역 결과 “타당성 있다”... 조례안 내일 시의회 제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 라디오방송사 설립에 대한 응역 결과 사회·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20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설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남대 등 5개 대학 연구팀은 18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영어방송사 설립 타당성 조사 응역결과 최종보고회’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 위상 제고 ▲시민 국제화 마인드 제고 및 영어능력 향상 ▲국제 문화관광 도시로 광주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영어 라디오방송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의 조사 결과 광주지역에는 거주 외국인 1만명, 외국인 관광객 32

만명, 중등이상 학생 26만명 등 60여 만명의 잠재적 방송 청취계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체제작 6시간 기준 3억7천만~4억9천만원의 추정 광고수익과 협찬, 전파료 등 다양한 수익대안을 마련할 경우 사회·경제적 타당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20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법인 설립 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기관 선정과 수도권 협력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협상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중 재단법인 설립을 마치고 10월까지 방송사업 허가, 인력 채용 등을 거쳐 내년 1월초 본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

경매 절차 하자로 손해 대법 “국가가 배상해야”

경매 절차 상의 하자로 경매 참가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유모(62)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1998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며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윤모 씨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채 낙찰기일 등과 관련된 경매 관련 우편물을 발송했고 결국 윤 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돼 유씨에게 낙찰됐다.

윤씨는 이에 경매법원의 과실로 낙찰허가가 취소·확정된 것이므로 국가가 1억4천447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iElysia' (이엘리시아) featuring a list of services, a photo of a man, and contact information: 062) 671-1199.

Advertisement for 'Iljung Han's Hospital' (일중한의원) featuring photos of doctors, a list of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062) 676-1075.